

일본 한문훈독에 관하여

쓰키모토 마사유키(月本雅幸)

1. 일본으로 전래된 한문과 한자

일본에 한자가 전해진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아마 일본에 한자가 전해진 시기는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 A. 한자가 새겨진 금속제품이 일본에 전해졌는데 일본인은 한자를 문자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한자 학습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단계
- B. 일본인이 문자의 기능을 이해하고 사용하기를 바라며 스스로가 의식하여 한자를 학습한 단계

필자는 A는 1세기, B는 5세기 초(서기 400년경)이리라 생각한다.

B의 단계에서 한자의 전래는 단순히 문자의 전래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여 쓰여진 문장, 즉 한문의 전래였다. 즉, 고대 일본인은 한자를 배울 때 동시에 한문도 배웠던 것이다. 『고지키(古事記)』나 『니혼쇼키(日本書紀)』의 기사, 게다가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자는 백제인의 손에 의해 일본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자가 전래된 초창기의 일본인이 바로 한자나 한문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 일본에서 한자, 한문을 쓰고 해독한 것은 고대 한반도(백제 등)로부터 도래한 사람들이었으며, 일본인은 초기에 전적으로 그들에게 의존하면서 점차 한자, 한문을 배워 습득해 갔을 것이다.

실제로 서기 600년경까지는 일본에서 쓰여진 것이 확실한 문장은 모두 정식

한문(正格漢文)이다. 그런데 600년이 지나면서 정식 한문의 어법에서부터 벗어난 파격적인 요소를 갖는 한문, 즉 ‘일본화된 한문(和化漢文)’(혹은 ‘변체한문(變體漢文)’이라고도 한다)이 나타나게 된다.

초창기에는 일본인이 한문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도래인에 의해 정식 한문이 쓰여졌으나, 이윽고 일본인이 한문을 쓰게 되어도 정식 한문은 곧바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본어적 요소를 가진 문장(일본화된 한문)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 한문 훈독의 창시

한문 해독이 오래 전 일본에서 어떻게 행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당연히 초기에는 한문을 중국어로 발음하고 외국어로서 이해, 학습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문을 일본어로 번역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일반적인(그리고 현재의) 번역이라면 원문과는 별개로 번역문을 기술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그런 식이 아니라, 한문의 본문을 보면서 일본어로써 읽어내려 갔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한문훈독’이다. 한문훈독이란 ‘한문을 각각의 문자는 음독 혹은 훈독으로 읽고, 문장은 일본어의 어순에 따르는 등 일본어로 변환하여 해독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 단계의 ‘한문훈독’에서는 읽었던 결과, 즉 번역한 내용을 문자나 부호로 전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읽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훈독을 하고 있었는지조차도 불분명하다(‘훈독’이 아닌, 중국어 혹은 그것과 비슷한 음으로 발음하고, 일본어로 번역하지 않는 것을 ‘자음직독(字音直讀)’이라 한다). 즉, 한서의 고사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일본에서는 그 서적의 대부분이 불교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보고도 그 서적이 ‘훈독’으로 읽혀졌는지 아니면 ‘자음직독’으로 읽혀졌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한편, 근년(近年) 시가 현(滋賀縣) 오쓰 시(大津市)의 기타오쓰(北大津)유적

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한자 읽는 법을 첨부한 목간(木簡-문자를 기록한 나무판,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관료들이 일상적으로 문서작성이나 메모를 할 때 사용함)이 출토되었다.

賛 田須久(タスク) 精 久皮之(クハシ)
 • [‘言’의 오른쪽에 ‘至’] 阿佐ム加ム移母(アザムカムヤモ)

특히 세 번째 예는 한자를 ‘아자무카무야모(アザムカムヤモ)’라고 읽어, 단순히 한자의 의미를 기록한 것이 아닌 한문을 문장으로 읽어 내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목간은 한서(漢籍)나 불전(佛典)에서 한자를 추출하여 거기에 읽는 법을 첨부한 것으로, ‘음의목판(音義木簡)’이라 불려지고 있으나 어떤 서적으로부터 추출된 한자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목간(木簡)은 유적의 형태로 보아 7세기 후반의 것으로 사료되어 일본에서는 한문 훈독이 7세기 후반에는 행해지고 있었다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3. 훈점기입(訓点記入)의 시작

다음 단계로 한문을 훈독한 직·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자료가 등장한다. 먼저 간접적인 것으로는 동경의 다이토큐 기념관(大東急記念館) 문고에 소장된 『속화엄경략소간정기제5권(続華嚴經略疏刊定記卷第五)』이 있다. 이것은 『화엄경(華嚴經)』(80권본)의 주석서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二 - 四 三
 次我今下顯对尊卑己

물론 원문은 세로쓰기이지만 한자 옆에 붉은 색 숫자를 기입, 읽는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이것이 일본 한문훈독의 ‘가에리텐(返り点)’ 중 가장 오래된 예이

다). ‘자음직독’이라면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어의 어순에 맞춰 ‘훈독’되었던 증거라고 보인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독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험삼아 읽어본다면,

다음으로 ‘나는 지금(我今)’(이 두 글자는 『화엄경』에서 인용된 것이다)보다 아래는 존엄함에 대해 자신을 낮추는 것을 나타낸다.

라고 해석될 것이다. 본서에는

延曆二年(七八三)十一月廿三日於東大寺与新羅正本自校勘畢以此善根生々之中殖金剛種斷一切障共諸含識入無 •(‘日’의 아래에 ‘寸’)門

以延曆七年(七八八)八月十二日与唐正本相对校勘取捨得失楷定此本後学存意可幸察耳自後諸卷亦同此矣更不録勘年月等也

두 권의 책 뒷부분에 위와 같은 내용(오쿠가키-奥書: 사본 등의 말미에 베긴 사람의 이름, 제작 일자, 제작 경위 등을 적은 글)이 기술되어져 있다. 이에 따르면 한자의 본문을 엔랴쿠 2년(延曆2年, 783년)에 도다이지(東大寺)에서 지내던 인물(승려)이 『신라정본(新羅正本)』에 따라 감교(校勘-고전의 간본이나 사본을 서로 대조하여 잘못된 곳을 바로잡음)하고, 게다가 필시 같은 인물이 엔랴쿠 7년(延曆7年, 788년)에 이번에는 『당정본(唐正本)』에 따라 ‘대교(对校-대조해서 교정함)’하여 그 ‘득실을 취사(取捨)’하여 이 책을 ‘해정(楷定)’했다라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783년과 788년이라는 연대에 관한 기재인데, 둘 중 어느 해에 전술(前述)한 한자의 읽기 순서를 표시한 숫자가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다지 다른 연대에 기술되어졌다고는 생각되어지지 않으며(여러 정황상 그렇게 판단됨) 결국 일본에서 훈독이 행해진 결과를 간접적으로 나타낸 자료로서 가장 오래된 연호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자료가 불교, 특히 『화엄경』에 관한 것이며 게다가 783년의 오쿠가키에 『신라정본』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일본의 한문훈독이

불교의 세계, 특히 『화엄경』이라는 학문 분야에 있어서 신라 등의 영향에 의해 발달되어졌다고 추측된다.

다음으로 직접 읽는 법을 기입한 것의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쇼소인 쇼고조(正倉院聖語藏)에 소장된 『오쿠쓰마라쿄(央掘魔羅經)』에 다음과 같이 기입된 글씨가 있다.

へ字	三悪	伊阿宇
漂	溺	嬰児

이것은 각각 ‘효(へウ: 일본 고전 표기)’, ‘미아쿠(ミアク)’(후세에는 ‘미야쿠(ミヤク)’가 되는 부분), ‘이아우(イアウ)’(후세에는 ‘야우(ヤウ)’라고 해독된다. 여기서는 한자의 음독(한자음)이 기입되어져 있다. 본서에서의 이와 같은 기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력(西曆) 8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한문훈독의 결과를 서적에 기입할 때, 그 문자나 부호를 ‘훈점(訓点)’이라고 한다. 전술한 『화엄경략소간정기(華嚴經略疏刊定記)』의 가에리텐(返り点)과 같은 부호도 ‘훈점’이며, 결국 일본에서의 훈점 기입은 8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 훈점이 기입되기 시작되었을 때의 자료로 현재 남아있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783년	속화엄경략소간정기 5권(統華嚴經略疏刊定記卷五)	다이토큐(大東急)기념문고
799년	화엄요의문답(華嚴要義問答)	엔라쿠지(延曆寺)
800년	경화엄문의요결(華嚴文義要決)	사토 다쓰지로(佐藤達次郎)旧藏-제 2차대전 소실
	마가연보엄경(摩訶衍宝嚴經)	쇼고조(聖語藏)
	릉가경(楞伽經)	쇼고조(聖語藏)
	증일아함경(增壹阿含經)	쇼고조(聖語藏)
	금광명경(金光明經)	쇼고조(聖語藏)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쇼고조(聖語藏)
	근본설일체유부심추니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心 蕪尼毘奈耶)	쇼고조(聖語藏)
	지인보살경(持人菩薩經)	쇼고조(聖語藏)

	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쇼고조(聖語藏)
	범망경(梵網經)	다이고지(醍醐寺)
	대방광불화엄경59권(大方廣佛華嚴經卷五十九)	도쇼다이지(唐招提寺)
	사문승도력산형현주비(沙門勝道歷山瑩玄珠碑)	신고지(神護寺)
	앙굴마라경(央掘魔羅經)	쇼고조(聖語藏)
	묘법련화경(妙法蓮華經)	신야쿠시지(新薬師寺)
	라마가경(羅摩伽經)	쇼고조(聖語藏)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쇼고조(聖語藏)
	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阿毘達磨雜集論)	쇼고조(聖語藏)
	사분률(四分律)	이시야마데라(石山寺)
810년경	경운사불설보살계경(景雲寫佛說菩薩戒經)	쇼고조(聖語藏)
	십주비파사론(十住毘婆沙論)	쇼고조(聖語藏)
	설무구칭경(說无垢称經)	쇼고조(聖語藏)
	원경사분율(願經四分律)	쇼고조 외(聖語藏他)
	당사사분율(唐寫四分律)	쇼고조 외(聖語藏他)
	금강파약경집험기(金剛波若經集驗記)	니시야마데라(西山寺)
	대반열반경집해67권(大般涅槃經集解卷六十七)	시라쓰루 미술관(白鶴美術館)
	대방광불화엄경14권(大方廣佛華嚴經卷十四)	케이오기주쿠대학도서관(慶應義塾大學圖書館)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지온인(知恩院)
	변중변론(弁中毘論)	니시야마데라(西山寺)
828년	성실론(成實論)	쇼고조 · 도다이지도서관(聖語藏 · 東大寺圖書館)
830년경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	이시다이데라(石大寺)
	금광명최승왕경 6권(金光明最勝王經卷六)	도쇼다이지(唐招提寺)
	금광명최승왕경주석(金光明最勝王經註釋(飯室切-가문별 반실질))	쇼조(諸家分藏)
	동대사풍송문고(東大寺諷誦文稿)	사토 다쓰지로(佐藤達次郎)旧藏
	법화문구 1권(法華文句卷一)	다카미네 히데오(高嶺秀夫)旧藏
	묘법련화경(妙法蓮華經)	교토국립박물관(京都国立博物館)
	묘법련화경방편품(妙法蓮華經方便品)	미멘가쿠인(箕面学院)
	대비로차나성불경(大毘盧遮那成佛經)	다카노야마가쿠인(高野山学院)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이시야마데라(石山寺)
	유마경의소(維摩經義疏)	호류지(法隆寺)
	금강파약집험기(金剛波若集驗記)	이시야마데라 · 덴리도서관(石山寺 · 天理圖書館)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쇼고조(聖語藏)
		니시야마데라(西山寺)
		지온인(知恩院)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미멘가쿠인(篁面學院)
묘법련화경현찬(妙法蓮華經玄贊)	쇼고조(聖語藏)
미륵상생경찬(彌勒上生經贊)	쇼고조(聖語藏)
십주비파사론(十住毘婆沙論)	쇼고조 외(聖語藏他)
설무구칭경(說无垢稱經)	
원경사분율(願經四分律)	

이중에는 ‘쇼고조(聖語藏)’에 소장된 것이 매우 많다. ‘쇼고조’는 전 나라(奈良)의 도다이지 손쇼인(東大寺尊勝院)의 경을 보관하는 건물(經藏)의 이름으로, 이 건물은 19세기 말부터는 도다이지에서 궁내성(宮内省-현재는 궁내청)에 의해 관리되었다. 즉 ‘쇼고조’의 자료는 본래 전부 도다이지의 것이었다. 게다가 ‘이시야마테라(石山寺)’는 8세기 중반 경 도다이지의 자원(子院)으로 창건된 사원(寺院-시가 현 오쓰 시(大津市))이었으며, 그 자료에는 도다이지로부터 가져온 것이라 생각되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남겨져 있는 훈점기입의 초기 자료는 대부분이 도다이지나 그 주변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현존하는 자료에서 추측하면 훈점의 기입은 도다이지 주변의 불교사원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일본 한문훈독의 특징

8세기 말에 나라의 도다이지 주변에서 시작된 훈점 기입은 9세기 말에는 교토(京都)로 전해져, 천황이나 귀족들 사이에서도 사용되었다. 다만 천황과 귀족이 훈점을 기입했던 서적은 불전이 아닌 한서(유교, 문학, 역사에 관한 것)였다. 이번에는 한서에 기입된 훈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에노가(上野家)가 소장한 『한서양웅전(漢書楊雄傳)』(당사본(唐写本)에는 일본 귀족들의 손에 의한 여러 종류의 훈점이 기입되어 있다. 그 중 주요한 것들은 948년에 기입되어 있다. 한편, 그 1절에

不(フ)
離
いろ(イル)

라고 한자 읽는 방법이 적혀 있다. 즉 ‘리(離)’의 오른쪽에 ‘후(フ)’, 왼쪽에 ‘이루(イル)’라고 기입되어 있고, 무엇을 근거로 이와 같은 읽기법이 기입되었는지가 밝혀져 있다(마쓰모토 마쓰타카(松本光隆) 『한서양웅전 덴랴쿠 2년(天曆二年) 점(点)에 관한 훈독의 방법』 『국어학(國語學)』128집, 1982).

마쓰모토 씨에 따르면 이 훈점 읽기법은 적당히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한다. ‘후(フ)’에 대해 말하자면 본문의 주(注)에 ‘보작왈이역야(普灼曰離歷也)’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리(離)=력(歷)’이 되기 때문에 ‘력(歷)’에 대해서 당시 일본에서 부여되었던 통상의 훈독 ‘후(フ)’를 대응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이루(イル)’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사본의 난외(欄外)에 ‘리입야(離入也)’라 기입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리(離)=입(入)’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므로 ‘입(入)’에 대해 당시 일본에서 행해졌던 통상의 훈독 ‘이루(イル)’를 대응시켰다는 것이다. 즉 마쓰모토 씨에 의하면 한서의 훈점은 누차 중국의 주석서(注積書)에 있는 기재 ‘AB’(‘A者B也’, ‘AB也’도 동일)에 의해 대상 A를 B라는 다른 한자로 바꾸어서 읽는 법을 기입하였다는 것이 된다. 이 마쓰모토 씨(현재 히로시마(広島) 대학 문학연구과 교수)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되어, 현재는 ‘한서(漢書)’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 서적의 일반적인 훈점 기입에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이 사용되어졌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 때 당시의 귀족들은 중국의 주석서를 이용함으로써 훈독, 다시 말해서 역서(訳書)의 정확성이 보증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불전(仏典)의 훈점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행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불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국의 주석서에서도 ‘AB’와 같은 설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승려들은 귀족이 한서를 사용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승려들은 어떻게 각각 한자 읽기법을 정했을까? 그것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하지만 사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한서의 훈점에 관해 또 다른 특징에 대해 언급하겠다. 한서의 훈독은 다이가쿠료(大学寮: 관리양성을 위한 학교)의 교관이었던 박사들이 행하였으나, 10세기 본래 실력기준에 따라 임명되었던 박사(교수)가 일부 귀족의 세습으로 되어버린 이후로는 가문별로 서로 다른 읽기 방법이 전승되어져 갔다.

간다본(神田本) 『문주(文集)』(하쿠시초케이슈(白氏長慶集), 제3, 4권 교토국립박물관 소장(京都国立博物館所蔵))는 1113년에 후지와라노 시게아키(藤原茂明)박사가 훈점을 기입했으나, 여기에는 한자 하나에 때때로 두 가지 이상으로 읽는 방법이 기입되고 있다.

マコト(に)
祗
マサに
只夕、

즉 ‘祗’라는 한자에 ‘마코토니(マコトニ)’, ‘마사니(マサニ)’, ‘다다(タタ)’라는 세 가지 읽기법이 기입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이미 해명되어져 있다(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芳規) 『간다본 하쿠시문주 훈의 분류(神田本白氏文集の訓の類別)』, 『국어와 국문학(国語と国文学)』40권 1호 1963년, 이후 참고문헌 27권 게재). 고바야시 히로시마 대학 명예교수의 논의에 의하면 사실은 궁내청서능부(宮内庁書陵部)에 별도의 『문주(文集)』의 사본(1325년에 훈점을 기입, 시현본(時賢本)이라고 불린다)이 있고, 여기에는 귀족의 어느 가문에서 어떤 읽기법이 사용되었는지 색분류(색깔이 있는 문자로 쓰여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것을 이용하면 간다본(神田本)의 어느 것이 어느 가문의 읽기법인지를 판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바야시 교수에 따르면 위와 같이 ‘祗’의 읽기 중에서 ‘마코토니(マコトニ)’는 시현본(時賢本)에서는 묵으로 쓰여져 있어 이것은 스가와라(菅原) 집안의 읽기법이고 마찬가지로 ‘마사니(マサニ)’는 시현본(時賢本)에서 노란색으로 쓰여져 오에(大江) 집안의 읽기법, ‘다다(タタ)’는 주홍색으로 쓰여져 있어 히노(日野) 집안의 읽기법이라는 것이다.

이 고바야시 교수의 연구는 당시 일본의 연구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커다란 의문이 남는다. 귀족인 박사 가문마다 읽기법이 전해진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가문(후지와라노 시게아키는 후지와라 씨 중에

서 ‘시키케(武家)’라는 일문에 속해 있었다)의 설을 알고 있었다면 충분했을 텐데 어째서 시게아키는 다른 가문의 설을 자신의 사본에 기입하고 정리한 것일까? 이 점에 관해서 고바야시 씨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후지와라노 시게아키는 선조로부터 전해져 온 『문주(文集)』의 읽기법에 의문을 느껴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른 박사들의 가문에서 전해지는 읽기법을 모아(각각의 박사가문에서의 읽기법은 서로에게 비밀이 아니었다. 다이가쿠료(大学寮)=학교(学校)에서 가르쳐왔기 때문이다) 그것을 참고로 하면서 자신의 가문의 읽기법을 바꾸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읽기법을 바꾸는 것이라면 다른 가문의 읽기법 등을 참고하지 않고 스스로 연구하면 되었을 것인데 그러한 것은 그다지 행해지지 않았다. 세습에 따라 실력 본위로 학자가 되지 않은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귀족, 한서 관련 학자들의 실력이 저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동시대의 불전은 어떠했는가 하면 각각 종파와 학파간의 읽기법의 차이는 한서만큼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불교의 학승(学僧)이 세습에 의한 것이 아닌(아내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없음) 실력에 따라 지위가 계승되는 면이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자력으로 새로운 훈독을 개발, 연구했던 것이다.

이상으로 일본 한문훈독의 상황에 관해 약간의 예를 들어 소개하였다. 일본의 한문훈독은 이미 100년에 가까운 근대적 연구를 거쳐 왔으며 많은 사실들이 밝혀져 왔다. 그러나 또한 아직 해명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이후에는 한국의 훈점, 특히 구결(口訣: 구전하는 비결)과의 관계 등도 고려되어 연구될 것이다.

참고문헌

1. 大矢透 仮名遣い及仮名字体沿革史料 明治42 国定教科書共同販売所(昭和47 勉誠社)
2. 春日政治 西大寺本金光明最勝王經古点の国語学的研究 昭和17 岩波書店 昭和44 勉誠社(春日政治著作集別券 昭和60 勉誠社)

3. 春日政治 古訓点の研究 昭和31 風間書房(春日政治著作集6 昭和59 勉誠社)
4. 吉沢義則 国語国文の研究 昭和2 岩波書店
5. 吉沢義則 国語設令 昭和6 岩波書店
6. 吉沢義則 点本書目(岩波講座日本文学のうち) 昭和6 岩波書店
7. 遠藤嘉基 訓点資料と訓点語の研究 昭和27 中央図書(改訂版昭和28)
8. 遠藤嘉基·広浜文雄 新版点本書目 昭和32 明治書院
9. 中田祈夫 古点本の国語学的研究總論篇·訳文篇 昭和29·33 講談社(改訂版 昭54 勉誠社)
10. 中田祈夫 東大寺諷誦文稿の国語学的研究 昭和44 風間書房(改訂版昭和54 勉誠社)
11. 中田祈夫 無量義經古点 昭和54 勉誠社
12. 中田祈夫 正倉院本地蔵十輪經卷五·七元慶点 昭和55 勉誠社
13. 鈴木一男 初期点本論改 昭和54 桜楓社
14. 大坪併治 訓点語の研究 秀和36 風間書房
14. 大坪併治 改訂訓点語の研究上、下 平成4、5 風間書房
15. 大坪併治 訓点資料の研究 昭和43 風間書房
16. 大坪併治 平安時代における訓点語の文法 昭和56 風間書房
17. 大坪併治 国語史論集上、下 平成6、10 風間書房
18. 大坪併治 石山寺本大方広華嚴經古点の国語学的研究 平成4 風間書房
19. 大坪併治 石山寺四分律古点の国語学的研究 上 平成13 風間書房
20. 大坪併治 石山寺本代智度論古点の国語学的研究 上 平成17 風間書房
21. 築島 裕 平安時代の漢文訓読語につきての研究 昭和38 東京大学出版
22. 築島 裕 興福寺本大慈恩寺三蔵法師伝古点の国語学的研究 訳文篇、索引篇、研究篇 昭和40~42 東京大学出版会
23. 築島 裕 平安時代語新論 昭和44 東京大学出版会
24. 築島 裕 古代日本語発掘 秀和45 学生社
25. 築島 裕 日本語の世界5仮名 昭和56 中央公論社
26. 築島 裕 平安時代訓点本論考 ヲコト点図仮名字体表 昭和61 汲古書院
27. 築島 裕 平安時代訓点本論考 研究篇 平成8 汲古書院
28. 小林芳規 平安鎌倉時代に於ける漢籍訓読の国語史的研究 昭和42 東京大学出版会
29. 小林芳規 角筆文献の国語学的研究 昭和62 汲古書院
30. 小林芳規 角筆文献研究導論 上、中、下、別巻 平成16~17 汲古書院
31. 西崎 享 高野山西南院蔵訓点資料の研究 平成7 臨川書店
32. 西崎 享 東大寺図書館蔵本‘法華文句’古点の国語学的研究 本文篇、研究篇
33. 西崎 享 訓点資料の基礎的研究 平成11 思文閣出版

34. 吉田金彦、築島裕、石塚晴道 月島雅幸 訓点語辞典 平成13 東京堂出版
35. 高山寺典籍文書綜合調査団篇 高山寺資料叢書高山寺古訓点資料第一～四 昭和55～平成15 東京大学出版会
36. 訓点語学会編 訓点語と訓点資料 (年2回刊) 昭和29～現在118輯まで刊行、他に別刊
特刊号あり